

중앙매일

제6회 단양군 주민복지 박람회 ‘성료’

제6회 단양군 주민복지박람회가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행복나눔 서비스!’란 슬로건으로 10월 마지막 날에 단양을 상상의 거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최·관행으며, 나눔의 장을 비롯한 체험의 장, 화합의 장, 홍보의 장 등 4개의 테마로 진행됐다.

주민복지 박람회의 4개의 테마는 주민자치·평생학습·복지시설 등의 공연과 화합의 장, 기부금품과 재능기부 접수·벼룩시장 등 나눔의 장, 상담과 복지사업 등 체험의 장, 복지시설(기관) 정보제공 등 홍보의 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총 44개 단체가 참여해 홍보·전시 25개, 체험 33개, 공연·판매 21개 등 7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민간 복지서비스 제공 절 수를 받고 자원봉사박람회,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44여 개 기관·단체가 대거 참가한 가운데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각종 퍼포먼스와 이벤트도 다채롭게 펼쳐졌다.

본 행사는 그린하모니 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부릴레이, 화합의 산재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 복지시설과 향토밴드, 단양어린이집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이 열렸다.

더불어 참가자 가족이 함께 즐길 체험행사와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됐다.

단양 / 김선용 기자

12.0 X 10.8 cm

총청신문

2015년 11월 02일 (월)
11면 지역

‘꿈과 희망이 있는 단양!

단양군 복지박람회 성료

단양군은 제6회 단양군 주민복지박람회가 지난달 31일 단양을 상상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행복나눔 서비스!’란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최·관행으며, 나눔의 장을 비롯한 체험의 장, 화합의 장, 홍보의 장 등 4개의 테마로 진행됐다.

주민복지 박람회의 4개의 테마는 주민자치·평생학습·복지시설 등의 공연과 화합의 장, 기부금품과 재능기부 접수·벼룩시장 등 나눔의 장, 상담과 복지사업 등 체험의 장, 복지시설(기관) 정보제공 등 홍보의 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총 44개 단체가 참여해 홍보·전시 25개, 체험 33개, 공연·판매 21개 등 7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민간 복지서비스 제공 접수를 받고 자원봉사박람회,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44여 개 기관·단체가 대거 참가한 가운데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 각종 퍼포먼스와 이벤트도 함께 펼쳐졌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이번 주민복지 박람회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정연환 기자 jyh3411@dailycc.net
5.5 X 19.0 cm

충청매일

2015년 11월 02일 (월)
07면 지역

단양군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

주민복지박람회 막내려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행복나눔 서비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제6회 단양군 주민복지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평생학습·복지시설 등의 공연과 화합의 장, 기부금품과 재능기부 접수·벼룩시장 등 나눔의 장, 상담과 복지사업 등 체험의 장, 복지시설(기관) 정보제공 등 홍보의 장 4테마로 진행됐다.

총 44개 단체가 참여해 홍보·전시 25개, 체험

33개, 공연·판매 21개 등 7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현장에서는 민간 복지서비스 제공 접수를 받고 자원봉사박람회,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도 함께 마련됐다.

올해는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44여개 기관·단체가 대거 참가한 가운데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각종 이벤트도 펼쳐졌다. 또 그린하모니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부릴레이, 화합의 산채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 복지시설과 향토밴드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이 열렸다. 조태현기자

13.9 X 7.1 cm

동양일보

2015년 11월 02일 (월)
05면 지역

단양 주민복지박람회 '행복했어요'

벼룩시장기부릴레이 등 진행

6회 단양군 주민복지박람회가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행복나눔 서비스 란 슬로건으로 지난달 31일 단양을 상상의 거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최 관행 했으며, 나눔의장을 비롯한 체험의 장, 화합의 장, 홍보의 장 등 4개의 테마로 진행됐다.

주민복지 박람회의 4개의 테마는 주민자치 평생학습 복지시설 등의 공연과 화합의 장, 기부금품과 재능기부 접수 벼룩시장 등 나눔의 장, 상담과 복지사업 등 체험의 장, 복지시설(기관) 정보제공 등 홍보의 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44개 단체가 참여해 홍보 전시 25개, 체험 33개, 공연 판매 21개 등 7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민간 복지서비스 제공 접수를 받고 자원봉사박람회,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과 사회단



6회 단양군 주민복지박람회가 지난달 31일 단양을 상상의 거리에서 열린 가운데 류한우 단양군수 등 내빈들이 화합의 산채 비빔밥 만들기를 하고 있다.

체,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44개 기관 단체가 대거 참가한 가운데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각종 퍼포먼스와 이벤트도 다채롭게 펼쳐졌다.

본 행사는 그린하모니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부릴레이, 화합의 산채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 복지시설과 향토밴드, 단양어린이집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이 열렸다.

아울러 참가자 가족이 함께 즐길 체험행사와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됐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이번 주민복지 박람회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단양 장승주>

15.1 X 14.7 cm